



IBM, SW 자산관리 업체 아이소곤 인수

IBM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업체인 아이소곤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월 21일 발표했다.

아이소곤 인수는 올해 3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티볼리 소프트웨어 사업부에 통합된다. IBM은 최근 기업 내의 IT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관리의 단순화 및 자동화를 요구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및 기타 플랫폼의 분산 시스템에 대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IBM 티볼리 라이선스 매니저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BM 티볼리 소프트웨어 총괄사장 알 졸라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사업다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아이소곤과 IBM 티볼리의 결합으로 고객들은 소프트웨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보다 확실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DC에 따르면 전세계 IT 자산관리 관련 지출은 2004년 9억7100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13억3,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키아, 차세대 무선 전략 발표

노키아는 와이맥스(WiMAX)를 어떻게 규정할까? 또 3G 이후 무선 통신 기술의 진화는 어떤 식의 밑그림을 가져갈까? 최근 노키아는 이에 대한 답(포트폴리오)을 제시했다.

먼저 노키아는 와이맥스를 '한정된 지역에서, 데이터통신용으로 쓰이는 고속의 무선 통신 기술'로 설명했다. 노키아 관계자는 와이맥스와 주요 3GPP 진화의 보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키아는 와이맥스 포럼의 설립 멤버로서 와이맥스 IEEE 802.16e 버전은 올해말 표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3G 기술의 진화형으로 노키아가 꼽은 것은 HSDPA와 HSUPA, 인터넷+HSPA(Internet+HSPA). HSDPA는 최대 다운로드 스피드 14.4Mbps, HSUPA는 최대 업링크 스피드 5.7Mbps 이상의 기술이다. 노키아의 네트워크 혁신 기술인 인터넷+HSPA는 3GPP 표준에 기반을 둔 기술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단순화한 브로드밴드 무선 접속 솔루션이다.

3G 기술의 차세대 단계로 노키아는 3.9G 혹은 UTRAN LTE(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Long Term Evolution), 또는 슈퍼 3G(Super 3G)로 불리는 기술을 권고했다. 이 기술은 피크 데이터 전송속도 100Mbps(다운링크)/50Mbps(업링크)를 목표로 하며, 2007년 중반까지 3GPP에서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에릭슨·썬, 3G폰용 자바 공동전선 펼친다

에릭슨과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3G휴대폰용 자바 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기존 관계를 확대해 자바 기술을 베이스로 한 통합형 멀티태스킹 솔루션 개발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썬의 CLDC(Connected Limited Device Configuration) 핫스팟 임플리멘테이션 기반으로 에릭슨의 모바일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나 개발업체들은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까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멀티태스킹 기능은 예를 들면, 자바 기술을 베이스로 한 푸시 방식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란 것이 에릭슨 관계자의 설명.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한 애플리케이션 탑재가 가능하며, 사업자나 제조업체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좀더 진화된 휴대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기술은 에릭슨의 3G 휴대폰 플랫폼에 편입돼 올해 말 라이선스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MS '피바디' 출시 임박

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바일용으로 준비 중인 저가형 스마트폰용 플랫폼 '피바디(Peabody, 코드네임)가 완성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인도나 중국 등 신흥시장용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이 플랫폼은 '저가를 무기로 전세계 OEM 업체용으로 범위를 확대해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피바디는 MS가 지난 2월 14일(현지시각) 프랑스 칸에서 열린 '3GSM 월드 콩그레스'에서 발표한 GSM/GPRS 휴대폰 플랫폼. 당시 MS는 싱가포르 휴대폰 제조업체인 플렉스트로닉스(Flextronics)와 합작으로 피바디 플랫폼을 이용한 고성능 저가의 스마트폰 생산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플랫폼의 소프트웨어는 PDA 기능을 일부 구현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설계는 플렉스트로닉스가 맡고 있다. 피바디는 최근 릴리스된 '윈도 모바일 5.0'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MS나 플렉스트로닉스에 따르면 피바디는 윈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 OEM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기능과 신속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유연성이 특징이다. 윈도 모바일 5.0 플랫폼으로 동작하는 피바디를 채용할 경우, OEM은 1만 8000종을 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품 라인의 커스터마이징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애플리케이션과 메시징의 통합을 요구하는 기업에서 최신 음악·비디오·사진·게임기능을 기대하는 컨슈머까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MS는 주장했다.

피바디의 OEM 파트너 제공 시기는 미정이지만 이미 모든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하드웨어 통합만 남겨둔 상태다.

올해 세계 휴대전화 시장규모 7억5천만대

세계 휴대전화 시장이 1분기에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올해 7억5천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트너의 1분기 세계 휴대전화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휴대전화 시장은 서유럽과 북미에서 대체수요 증가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억8천만여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트너는 올해 전망치를 7억2천만대에서 7억5천만대로 올려 잡았다. 이것은 지난해의 6억7400만대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대체수요가 주류를 이루는 미국이나 서유럽보다는 신흥 시장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 저가 휴대전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일부 휴대전화 업체들은 낮은 마진율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체별로는 노키아가 1분기 시장 점유율 30.4%를 차지해 1위, 모토로라가 16.8%로 2위를 고수했으며 삼성전자는 13.3%로 3위, LG전자는 6.2%로 4위에 올랐다. 최근 휴대전화 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지멘스는 5.5%로 5위였다.

세계 MP3P 수요 가파른 성장 예고

전 세계 휴대용 디지털 음악기기 수요가 가격하락과 기능 개선, 합법적인 음원의 확산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인 인-스태트(In-Stat)에 따르면 전 세계 휴대용 디지털 음악기기 수요는 오는 2009년까지 1억 400만대에 달해 현재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태트는 하드디스크형과 플래시 메모리형을 포함한 전체 MP3 플레이어 수요가 지난해 2,780만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 규모는 약 45억달러로 지난 2003년에 비해 거의 200% 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애플의 아이팟(iPod)이 전 세계 휴대용 음악기기 시장 점유율 30.2%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를 D&M 홀딩스의 리오·레인콤의 아이리버·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의 크리에이티브 젠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인-스태트는 덧붙였다.